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개교 60주년

CEO의 요람, 호남최고 BIZ 스쿨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이 개교 6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세계를 위한 중핵 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경영대학(학장 정용기·경영학부 교수)은 오는 28일 오후 5시 신양파크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교수, 학생, 지역인사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 날 기념식에서는 경영대학 발전을 위해 힘쓴 동문과 교수, 사회인사들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된다.

조재우 명예교수·양진석 한국환경개발 회장·이개호 전남도 부지사·홍유식 수산물산 회장·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 5명에게 '자랑스런 경영대인 대상'이 수여된다.

◇다채로운 기념행사=27일에는 경영대학 소강당에서 경영대학 60년을 회고하고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되며, 기업마케팅 재단회·영어프리젠테이션 대회·동문체육대회 등 참여행사가 열린다. 또한 1962년 경영대 옆에 세워졌다가 신축 공사시 철거됐던 시계탑을 아쉬워하는 동문의 추억을 되새기고,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정용기 학장과 교수, 그리고 경영대학 학생총보대사들. <전남대 제공>



경영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정용기 학장과 교수, 그리고 경영대학 학생총보대사들. <전남대 제공>

동문 1만5000여명 배출 인재 양성 산실

27일 발전모색 심포지엄, 28일 기념식

최근에는 미래지향적인 글로벌 능력을 가진 리더 양성을 위해 세계 주요 대학들과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능력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현장 중심의 학습시스템, 산학협력 프로그램, 교수·학생 간 협동학습방법 등에 세워졌다.

◇도립 상과대학으로 출범= 지난 1950년 도립목포초급상과대학으로 출발해 2년 후인 1952년 국립 전남대 상과대학으로 편입됐다. 현재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등 2개 학부에 2100명이 재학하고 있다.

동문을 배출해 사회 곳곳에서 경영, 경제분야의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종 기업체는 물론 법조계, 관계, 학계 등에 두루 포진해 있으며, 특히 경영학 분야의 고시라고 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CPA) 합격자를 183명이나 배출함으로써 국립대학 중에서도 명실상부한 최고의 경영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재 양성의 산실=경영대학은 지난 60년 동안 1만5000여명의 대기업에 취업한 졸업생 중에는

김성선 금호산업 대표이사,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과 같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한 졸업생들이 많고 양재봉 대신증권 창업자, 양진석 한국환경개발 회장, 임현우 보해양조 대표이사, 최원락 씨아이씨프赖아비티 회장과 같이 직접 기업을 설립한 동문도 많다. 또한 국내외 대학에서 85명의 동문이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용기 경영대학 학장은 "경영대학은 세계 일류 경영대학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학생들의 능력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작인: chae@kwangju.co.kr>

광주여대 교사 임용 '교직 과정' 전국 8위 광주·전남 대학중 1위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오장원)가 2007~2009년까지 3년간 교사 임용 비율 순위를 분석한 결과 '선생님'을 배출한 전국 158개 대학의 교원양성기관(사법대·교육학과·교직과정·교육대학원) 중 '교직과정' 부문에서 전국 8위를 차지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북의 대학교에

서는 1위의 성적을 보였다.

'교직과정' 임용 비율 순위는 한국체육대가 21.0%로 전국 평균비율인 4.6%의 2배를 넘어섰다. 이화여대(9.6%) 13위, 서울대(8.6%) 16위였다. 이 밖에 광주·전남 지역에서 광주여대를 제외하고 교직과정 임용비율 20위 안에 든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광주여대의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원 임용 비율은 10.9%로 전국 평균비율인 4.6%의 2배를 넘어섰다.

이 같은 결과는 광주여대가 전문 인력 양성을 교육의 목표로 둔 데 따른 결과다. 사범계열 학과(유아교육과·초등특수교육과·중등특수교육과), 전문 교과 교직과정 개설

학과(미용·보건·영양·전문상담·디자인·공예 등)에 학교의 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장원 총장은 "예비 교원양성 관련 학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최고의 교원양성 명문대학으로 만들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작인: chae@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특자 서비스국(062)220-0551

무등산 생 침엽

서구 홍동 광주여고 후문 앞
숙제교습소·금증 교육부·당뇨병부·간증부
식물성 에스토리·한방 치료부
100% 국내산 자연 침

이내과의원

서구 홍정동 918-7(아진 b/d 3층)
위내시경·당뇨검사진단·치료부 후판정
원장 이기주
(062)383-7797

편안장기요양센터

북구 중동 광주여고 뒤편
정성껏 아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대표 임순자
(062)522-8987

오색갈비

동구 황금동 파레스 호텔 앞
오색갈비·다섯가지의 맛
대표 김은강
(062)233-9595

우정설렁탕

서구 치평동 1282-2
치평동에서 원조 설렁탕과 함께 즐기세요
대표 조선희
(062)381-7174

회사랑

북구 문암동 로이젠 매장상가 앞
승어·무락·광어·참돔·민어
각종 회 전화 주문시 신속배달
(062)515-6802

서울화방·화랑

동구 장동 광주여고 후문 앞
고급액자·제작전문 회방
대표 김명수
(062)222-9792

친구식당

서석동 23-14 조대 정문 건너편
오리훈제·이구찜·뼈해장국·추어탕
단체 손님 환영
(062)224-0079

베네슈공인증개사

광산구 수원동 무미린@1차 후문
상가·APT 분양권·땅 전문
대표 박은자
(062)371-8844

모정

북구 문흥동 금호APT 입구 150번 버스정류장
오리로스·탕·훈제·주물럭·익모리·옻모리
보신탕·삼계탕·단체예약·온수탕·황금탕

건영특수금속

북구 장동동 시내버스 종점
금은 스크랩·pcb·폐기물·폐대전·
컴퓨터·폐전자장기·독수금속제철·철거재

가고당

복구 문흥동 도동고개 고가다리밑
고기구·민속품·고서화·옛날 물건입니다.
대표 문인종
(062)527-2058

삼호갤러리

복구 문흥동 도동고개 고가다리밑
민속품·고서화·고기구·옹구·활구통·향아리
근대사·옛날 물건입니다.
(062)267-5037

광주번역통역

동구 대동동 등반장에서 앞 광주외국어대학 3층
영국·일본·중국·베트남 각동 통역 및 번역서비스
영문1급 번역사·자격 소유
(062)431-4788

모시떡집

광산구 월곡동 유희사거리 오피아 월드빌딩 뒤면
이비지피·모시hood 전화주문시 전국 배송 가능
떡송·칼국수·갈비국수·우기밀한우·영양만두·간식

소망분식

상무2동 효광중학교 앞
김치찌개·된장찌개·비빔밥·콩국수
대표 나덕철
(062)371-6142

비아공인증개사

광산구 비아동 비아 소방서 앞
통신·부동산·상가토지·임대 및 매매전문
대표 김길현
(062)856-0023

신촌도요양병원

광신구 신촌동 삼거리 송정파출소 맞은편
양·한방·혈진·전문병원·치매·증증
노인질환 전문병원
(062)942-8811

이식스옹봉점

북구 용봉동 아울렛 거리
리먼 및 마리온 브랜드·신발·의류
액세서리·모니카 티아거·상품 판매
(062)262-6982

미가식당

북구 문동동 셋터코아 시거리
독문지·삼겹살·갈치조림·매운갈비찜
대표 최홍순
(062)251-7565

치주학계 세계적 석학 美콜롬비아대 이석우교수

전남대 치의학대학원 교수 임용

치과병원 진료 시작…구강 병인균 연구 수행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오희관 교수)은 세계적인 치주질환의 석학으로 꼽히는 미국 콜롬비아 치과대학 이석우 교수(사진)를 2010년 외국인 교수로 특별 채용했다.

미국 콜롬비아대학은 미국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으로, 세계 10대 대학에 매년 선정되는 명문대학이다.

국내 치의학계에서 이처럼 세계적인 석학이자 현직 교수를 초빙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석우 교수는 1983년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88년에 미시간대 치과대학에서 치주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치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플로리다 대학에서 구강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대학에서 치주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학박사학위를 같이 취득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메릴랜드대, 콜롬비아대 치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수 재직중 콜롬비아 치과대학을 다시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와 워스콘신주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등 환자 치료와 임상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치주학회 인정 치주과 전문의(Diplomate) 자격을 취득해 치주과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여 왔다.

이석우 교수는 임상 치주학 분야

뿐만 아니라 치주병을 일으키는 세균에 대한 연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의 연구는 주로 치주 및 구강질환의 미생물학에 관련된 것으로, 원인균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십여년 미국 정부의 지원아래, 주요 치주 병원균 발병인자의 독특한 유전학적 구조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등, 치주 미생물 분야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석우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메릴랜드대, 콜롬비아대 치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수 재직중 콜롬비아 치과대학을 다시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와 워스콘신주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등 환자 치료와 임

상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아울러 이 교수는 미국 치주학회 인정 치주과 전문의(Diplomate) 자격을 취득해 치주과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여 왔다.

국내 치의학계에서 이처럼 세계적인 석학이자 현직 교수를 초빙한 경

우는 처음이다.

이석우 교수는 1983년 서울대 치과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1988년에 미시간대 치과대학에서 치

주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치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플로리다 대학에서 구강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대학에서 치

주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고 이학박

사학위를 같이 취득한 경우는 아주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메릴

랜드대, 콜롬비아대 치과대학 등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교수 재직중 콜

롬비아 치과대학을 다시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와 워스콘신주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등 환자 치료와 임

상분야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